

한국 전쟁에서의 중공군 개입과 미국 정보 실패 - 전략적 기습과 정보 순환 과정을 중심으로 -

김주현*

국문요약

6·25전쟁은 두 차례의 중대한 기습적 사건으로 특징지어진다. 북한의 남침과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위협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세를 예상하거나 이에 대비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미국 군사사에서 가장 중대한 패배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본고는 중공군의 개입이 첫 번째 기습인 북한의 남침과 별개의 정보 실패 사례임에 주목하고, 방향 설정, 수집, 분석, 전파라는 정보 순환 틀을 토대로 정보 실패가 발생한 단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본고는 정보 실패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수집 단계의 한계가 아니라 전략적 방향성의 부재와 정보 순환 과정 내부의 자기 점진 기능 결여에 있었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정보와 정치적 판단의 상호작용이 전략적 기습을 형성하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이 결합된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경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주제어: 한국 전쟁, 정보 실패, 중공군 개입, 정보 순환 과정

*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생, jk328@iu.edu

I. 서론

한국 전쟁(이하 6·25 전쟁)은 1950년 6월25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침과 같은 해 11월 중국의 예상치 못한 군사 개입이라는 두 차례의 중대한 사건으로 특징지어진다. 초기 기습은 대한민국을 당황하게 하였지만 미군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으며, NSC-68이 보여주듯 한반도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Drew 1996). 반면 두 번째 기습인 중국의 공세는 미군과 연합군을 정면으로 겨냥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미 전쟁에 개입한 상태였고, 자국군과 한국군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McDermott and Bar-Joseph 2017).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개입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역사상 가장 참혹한 군사적 패배 중 하나를 겪었다. 무엇이 잘 못되었는가? 중국의 공세가 정말로 예상 밖이었는가, 아니면 미국 지도부가 충분한 경고를 수집하였음에도 이를 경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는가? 정보 기관은 방향 설정, 수집, 분석, 또는 전파의 어느 단계에서 실패하였는가?

중공군(中共軍,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Force)의 개입은 ‘전략적 기습(strategic surprise)’과 ‘정보 실패(intelligence failure)’ 연구에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Betts 1980; Kam 2004; Bar-Joseph and Levy 2009; Jackson 2010). 그러나 기존 연구는 6·25전쟁의 두 차례 기습-북한의 남침과 중공군의 개입-을 하나의 단일한 정보 실패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쟁 발발 초기의 북한 남침에 초점을 맞추거나, 제3국의 개입처럼 정보의 출처가 다원적이고 우선순위 설정이 복잡한 상황을 별도의 분석 대상으로 취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¹⁾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정보 실패의 책임이 정보 기관에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며, 이를 통해 6·25전쟁이 정보 실패 사례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려 한다.²⁾ 일부 연구는 한국 내 지역 정보 기관의 인적·물적 한계에 주목하였으나, 전쟁의

1) 중공군 개입에 초점을 맞춘 국내 학술 연구는 이종판과 코야나기 준이치(Lee Jong-pan and Ko Yanagi-Junichi 2008) 및 장호근(2016) 참조. 한국 전쟁 발발 시점에 초점을 맞춘 국내 학술 연구는 정주진(2020), 석재왕(2019), 김영준(2015), 한관수(2017) 참조.

2) 국내 학술 연구 중에는 정보 외적 요인, 즉 정책결정자의 오판으로 정보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석재왕 (2019) 및 장호근(2016) 참조.

전 과정을 포괄하지는 못하였다.³⁾ 종합하면, 기존 연구들은 한국 전쟁 내 중공군 개입에서 발생한 정보 실패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추적하거나, 정보 순환 과정의 각 단계가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장호근(2016)은 기존 연구의 문제 의식을 보완하여, 중공군 개입 시점을 중심으로 정보적 요인과 정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정보 순환 과정(intelligence cycle) 접근을 도입함으로써 전쟁 발발 초기와 중공군 개입 국면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 순환 과정의 틀 내에서 정보 실패의 책임 주체(기관 혹은 체제)를 규명한 장호근(2016)의 분석을 확장하여, 정보 실패가 발생한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25 전쟁에서의 중공군의 개입은 기습(surprise)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군사적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본고는 이를 정보 실패의 결과로 해석한다. 기습은 그 자체로 정보 실패의 산물이자 결과론적 현상으로, 정보 실패는 필연적이지만 언제,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는 ‘정보 순환 과정’의 관점에서 중공군의 개입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재검토하고, 실패가 주로 어느 단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규명한다. 더불어 이 실패가 체계적 정보 실패였는지 혹은 의도된 정치적 판단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나아가 정보 순환의 각 단계에서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행 단계의 오류가 이후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앞선 실패가 반드시 다음 단계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정보 순환 과정 내에서는 학습(learning)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공군 개입 사례에서는 각 단계가 이전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계별 실패의 발생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보 실패 연구의 시간적·과정적 분석을 보완하고, 정보와 의사결정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3) 정보 수집 과정에서 결정적인 오판을 야기한 극동군사령부와 미 정보기관 사이의 권력 양상에 초점을 맞춘 이종판과 코야나기 준이치(Lee Jong-pan and Ko Yanagi-Junichi 2008), 국내에서 활동한 인적(HUMINT), 통신(COMINT) 정보기관의 활동을 살펴보는 장호근(2016) 참조.

4) 바-조셉과 맥더모트(Bar-Joseph and McDermott 2017)는 정책결정자의 학습(learning) 과정과 여부를 통해 경고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한다. 즉, 전략적 기습과 정보 실패의 맥락에서 학습이란 한 행위자가 보낸 신호가 다른 행위자에 의해 성공적으로 관찰되고, 그 결과 수신자의 기존 신념이 수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II. 이론: 기습과 정보 실패

1. 전략적 기습(Strategic surprise)

기습은 사건이 공격을 받은 국가의 예측이나 기대를 뒤엎을 때 발생하며, 이를 통해 기존 기대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 장소, 방식 등을 잘못 판단하면 작전상 기습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적의 의도에 대한 기대와 가정은 경고 신호의 명확성과 공격 시점을 규명하며, 결과적으로 대응 능력을 좌우한다. 이러한 가정과 현실 간의 불일치는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더욱 부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공격이 상대방의 억지 전략을 초반부터 무력화시켜 강력한 방어 체계조차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Kam 2004, 8; McDermott and Bar-Joseph 2017, 9-10). 이러한 특징은 기습이 국제 정치에서 독특하고 중대한 현상임을 시사한다.

기습에 관한 연구는 그 파괴적 효과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과 억지 이론에 주는 함의 때문에도 중요하다. 정확한 상황 평가는 효과적 인 정책 수립의 핵심이며, 정보 실패는 드문 예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인 “정보를 숨기려는 쪽과 이를 찾는 쪽의 경쟁적 게임(game between hiders and finders)”의 산물이다(Jervis 2010, 2). 전략적 기습은 정보와 정책 실패가 맞닿는 지점을 보여준다. 피해국은 갈등 초기 위협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하며 억지력을 지속적인 안정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어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잘못된 평가가 곧바로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진정한 정보 실패는 기본적 대비와 비상 대비가 모두 부재할 때에만 발생한다(McDermott and Bar-Joseph 2017, 16-17).

따라서 정보 실패, 전략적 기습, 억지 실패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현상의 세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⁵⁾. 이 틀에서 전략적 기습

5) 전략적 기습 공격과 관련하여, 정보 실패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저비스(Jervis 2010)는 정보 실패를 현실 상황과 의사 결정자들의 인식 사이의 “불일치”로 간결하게 정의한다. 바-조셉과 맥더모트(Bar-Joseph and McDermott 2017)는 이를 위협 과소평가와 부정확한 비용 평가의 결합으로 더 상세히 설명한다. 한편 캄(Kam 2004)은 공격 발생 여부, 시기, 장소, 방식 등 핵심 작전 변수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실패에 초점을 맞춘다.

은 피해자가 자신의 억지 전략과 정보 주기의 붕괴를 동시에 인식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요컨대 전략적 기습은 가정과 현실의 불일치가 드러나면서 정보 실패를 표상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습 공격이 인지적 편향에 의해서만 발생하지는 않지만 정보 실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정보 주기의 각 단계를 추적하여 실패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규명하고, 이 분석 틀을 6·25전쟁 사례에 적용한다.

2. 정보 순환 과정(Intelligence cycle)과 실패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보 주기는 연구자들이 채택하는 분석 틀에 따라 일반적으로 4~6단계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5단계 유형론은 정보 수집(collection)과 처리(processing)를 별도의 단계로 구분하지만, 전장과 같은 맥락에서는 이 두 과정이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면, 분석은 대체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4단계 유형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Johnson 2006). 4단계 유형 모델은 계획 및 지시(planning and direction), 수집 및 처리(collection and processing), 분석(analysis), 보급(dissemination)의 네 단계를 포함하며 현장 수준(field-level)의 데이터 획득과 상위 수준의 해석 사이의 공간적·기능적 구분을 강조한다. Johnson(2006)이 지적하듯, 정보 순환의 어느 단계에서든 취약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정보 실패가 발생한다.

첫째, 계획 및 지시 단계(planning and direction)의 실패는 고위 정부 관료와 정보 수요 기관이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유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임무 부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실패에는 부적절한 정보 우선순위 설정과 정보 기관의 제한된 제도적 자원 및 역량이 기여한다. 둘째, 수집 및 처리 단계(collection and processing)의 실패는 방대한 원자료(raw data)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부적절한 처리 메커니즘으로 인해 효과적인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셋째, 정보 순환 과정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분석 단계(analysis)의 실패는 수집된 정보를 정확히 해석하거나 그 맥락을 파악하여 실행 가능한 통찰로 전환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실패는 정보 공유 및 융합 부족, 인지적 편향, 전문성 결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골적인 정치적 개입 등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급 단계(dissemination)의 실패는 생산된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더라도 그 중요성과 함의를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 기관의 의도적 은폐, 전달 지연, 또는 정책결정자의 낮은 수용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활용될 경우, 그 신뢰성이 훼손되어 전략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된다.⁶⁾

Ⅲ. 실증 분석: 6·25전쟁 내 중공군 개입 과정과 미국 정보 기관

1. 북한과 중국

당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달리, 북한, 중국, 그리고 소련의 전쟁 관련 의사결정 과정은 단일한 블록으로 통일되거나 긴밀히 조율되지 않았다. 각 행위자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동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미국 측의 대표적 정보 실패 사례로 널리 언급되는 김일성의 남침 결정은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 가능성을 크게 과대평가한 데 기초하고 있었다(McDermott and Bar-Joseph 2017). 스탈린은 계획을 승인하였지만 한국을 전략적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으로 간주하고, 작전이 실패할 경우 소련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49년 미군 철수와 딘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의 한국 방위선 제외 발언 이후 미국이 한반도 관심이 제한적이라는 김일성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내전 승리와 소련의 핵실험 등 당시의 지정학적 변화 또한 스탈린의 확신을 강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오쩌둥(毛泽东)은 초기에는 개입에 주저하여 조건부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선제공격에는 반대하였다. 중국의 최종

6) 이 부분의 논의는 존슨(Johnson 2006)과 아슈라프와 사커(Ashraf and Sarker 2016)이 사용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의 연구는 정보 실패가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승인은 전략적 필요성보다는 소련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었다.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결심하며 남한의 여론을 오인하였고, 서울 함락이 북측에 대한 지지를 촉발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인식은 스탈린의 보고서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Thornton 2000). 북한과 달리 중국의 개입 결정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이었다. 미군의 군사적 우위를 인식한 중국 지도부는 국경에 미군과 연계된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8월5일, 마오쩌둥이 주재한 중앙군사위원회는 미군의 상륙작전을 정확히 예측하며 중공군에 9월30일까지 전쟁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하였다. 8월말까지 중국 분석가들은 인천을 미군의 가장 유력한 상륙 지점으로 파악하고 김일성에게 경고를 전달하였으나, 그는 이를 무시하였다. 압록강을 건너 선제 개입을 결정한 것은 10월 첫째 주였으며, 10월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 26만 명 이상의 병력이 북한으로 진입하였다. 첫 교전에서 중공군은 한국군 여러 대대와 일부 미군 부대를 격파하였으나, 화력 부족으로 인해 유엔군 3개 사단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Dehuai 2001; Yu 2001; McDermott and Bar-Joseph 2017).

중국의 공세는 그 자체로 베이징의 의도를 반영하는 분명한 신호였다. 특히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38도선을 넘으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지휘부는 중공군 개입의 규모와 조직을 잘못 판단하였다. 일시적 후퇴 이후 중공군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유엔군을 북쪽으로 유인하는 기만 작전을 전개하였고, 맥아더는 중공군이 후퇴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전 전쟁 종결을 목표로 11월25일 대규모 공세를 개시하였지만, 이는 치밀하게 준비된 중공군의 함정에 걸려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McDermott and Bar-Joseph 2017).

2. 미군의 결정과 정보 기관

1) 배경

1950년 6월25일 발발한 6·25전쟁은 북한군이 남한을 기습 침공해 초반에 성공을 거두며 냉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6월30일 무렵 한국군은 거의 붕괴되었고, 이에 미국은 현상 회복을 위해 개입하였다. 9월15일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역전시키며 서울을 탈환하고 조선인민군(朝鮮人

民軍)을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38도선에서 작전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소련의 개입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진하여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할 것인지(MacArthur Sep 28, 1950a)라는 전략적 딜레마를 초래하였다.

9월27일,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군이 북한으로 작전을 확대(escalate)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였다. 즉, 중국이나 소련의 군사 개입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것, 개입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을 것,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응할 만한 신뢰할 만한 위협이 없을 것 등이었다. 그러나 10월25일부터 11월8일까지 중공군은 유엔군 진지를 상대로 사단급 공격을 연달아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아더의 FEC G-2(미국 극동군 사령부 정보참모부)⁷⁾의 정보참모장 소장 윌러비 장군(Major General Charles A. Willoughby)⁸⁾은 중국의 전면적 공세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주장하였다(장호근 2016; McDermott and Bar-Joseph 2017). 결국 맥아더는 11월말 압록강을 향해 공세를 재개하였으나, 이 같은 결정은 미군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배 중 하나를 초래한 대규모의 치밀하게 준비된 중공군 매복 작전에 휘말리게 하였다.

2) 전쟁기 미국 정보 기관

(1) 기관 (Institutions)

6·25전쟁 초기 미국은 한반도에서 분산되고 인력이 부족한 정보 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관할권이 중복되고 협력이 제한적인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요 미국 정보 기관으로는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주한 미군사고문단(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KMAG), 주한 미연락장교단(Korean Liaison Office, KLO), 주한 미국 대사관, 극동공군(Far East Air Force, FEAF) 산하 특수조사처(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 OSI) 등이 있었고 (석재왕 2019), 한국은 대통령 직속 중앙정보국, 국방부 제4국인 정보국, 육군정보국, 작전참모부 산하 해군정보과 등 자체 정보 기관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역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들

7) G-2는 KLO를 설립한 정보 기관이며, 1949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 후 한국 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였다(Allen R. Millet 2005).

8) 헤인스(Haynes 2009)는 윌러비가 FEC 내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intelligence assessments)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인물이라고 언급하였다.

기관은 훈련된 인력, 언어 능력, 기술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위협 평가와 작전 대응을 제때 수행하지 못하였다(장호근 2016).

1947년 전략사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 해체 이후 신설된 CIA는 차관급 지위에 머물러 미국내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CIA의 역할은 장기적 전략 평가보다는 일일 브리핑과 상황 검토 등 현안 중심의 정보에 집중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보인 제한적인 관심은 CIA의 전략적 기여를 더욱 축소시켰다(홍석률 2022). 1949년 창설된 군보안국(Armed Forces Security Agency, AFSA)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 정보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예산 삭감을 겪었고,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다(장호근 2016).

(2) 인적정보(HUMINT) 및 통신정보(COMINT)

극동 지역에서의 미국 정보 수집은 인적 정보(HUMINT)와 통신 정보(COMINT)로 나뉘었다. HUMINT는 주로 극동사령부(FEC) 산하 합동특수작전부(Joint Special Operations Branch, JSOB)에서 관리하였으나, CIA와 G-2 간 협력 구축 노력은 특히 윌러비 장군의 저항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좌절되었다⁹⁾.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과 주한 미연락장교단(KLO)은 게릴라 활동과 난민 심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인적 정보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이들의 보고 체계가 주로 도쿄로 향했다는 점은 맥아더 장군의 직접적인 감독과 관심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1949년 미군 철수 후 설립된 KLO는 북한군 이동 및 게릴라 활동 감시를 담당하였으나, 심각한 인력과 자원 부족에 직면해 있었다(장호근 2016).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1950년 6월 북한의 침공은 사실상 예측되지 못하였다. 난민과 소수의 포로 심문에 의존한 정보는 공격의 규모와 시기를 감지하기에 불충분하였으며, CIA와 G-2 간 경쟁은 워싱턴과 도쿄

9) 윌러비가 CIA를 배제하고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Justin M. Haynes, *Intelligence Failure in Korea: Major General Charles A. Willoughby's Role in the United Nation Command's defeat in November, 1950* (thesi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Fort Leavenworth, Kansas, 2009), 68; McDermott and Bar-Joseph, 2017, 148 참조.

로의 핵심 정보 전달을 더욱 지연시켰다. 전쟁 발발 후에도 AFSA가 주도한 통신감청(COMINT) 부문은 한국어·중국어 통역관 부족, 감청 장비 미비, 조직적 혼란 등으로 인해 여전히 비효율적이었다(Aid 2000). 또한 감청 역량의 상당 부분이 소련 활동에 집중되어 있어 초기 단계에서 중국 통신 흐름은 거의 감시되지 않았다.

IV. 평가: 미국은 중국의 개입을 예측하였는가?

1. 중공군 개입은 정보 실패였는가?

당시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지리적 요건을 고려할 때, 미국의 판단은 일본 혹은 대만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계산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공군 개입의 시점과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였다면, 이러한 추가적 고려가 정책적 판단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반대로 미국이 중공군 개입을 예상하는 데 실패하였다면, 이는 정보 과정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당시 미국의 판단이 전략적 계산이었는지 혹은 정보 실패의 결과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 순환의 각 단계에서 작용한 한계의 유무를 검토한다.

CIA의 사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공군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조치일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관들은 중국이 개입의 최적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결론짓고, 이후 나타난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였다(CIA 1955). CIA는 이러한 판단을 정당화하면서, 중국의 위협은 “한국 최북단 지역에 투입될 유엔군은 한국군 외에는 없을 것¹⁰⁾”이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입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하였다(CIA 1950a; CIA 1955). 맥아더 장군이 합동참모본부(JCS)와 주고 받은 통신 내용에서도 이러한 과소평가가 드러났다. 11월4일 맥아더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북한 개입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적

10) “No UN Forces would be committed in the extreme northern reaches of Korea except those of South Korea.”

절하지 않다¹¹⁾”고 보고하였다(MacArthur Nov 4, 1950). 같은 메시지에서 그는 38도선 이북에서의 공세 지속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그가 38도선을 넘을 경우 개입하겠다는 중국의 반복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협이 실현될 가능성, 즉 중공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낮거나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음을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CIA와 맥아더는 중국 개입의 시급성과 규모를 잘못 판단하였다. 그들의 평가는 중공군 개입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지연되었고, 11월말 중공군의 두 번째 공세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이미 10월말 1차 공세 당시 개입하였는데, 이는 38도선 횡단에 대한 중국의 사전 경고와 부합하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2차 공세에서 중공군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약점을 가장하는 기만 전략을 채택하여 성공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반면 미국 정보기관은 중공군의 존재를 제한적이고 자발적인(voluntary)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마저도 만주 방어를 위한 조치로 간주하고 6·25 전쟁에 대한 전면적 개입의 의지로 보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11월말~12월초까지 중국 개입의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후행적 인식은 공식 보고서의 급변한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11월25일 맥아더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한국 전쟁 개입은 우리가 병력을 투입할 당시 의도적으로 감수한 위협이었다. … 우리 군은 국경 전역을 장악하기 위해 투입되었으며, 실제로 동부에서는 이미 압록강 일부 구역을 점령하였으나 소련이나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반응은 눈에 띄지 않았다”(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a)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상황은 극적으로 재평가되었다. 11월28일 맥아더는 “한국 전쟁이 북한군과 소수 외국군에 국한될 것이라는 희망은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¹²⁾ 중국 군대는 이미 대규모 병력을 북한에 투입하였으며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b)고 보고하였다.

요컨대,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그 시점과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11) “It is impossible at this time to authoritatively appraise the actualities of Chinese Communist intervention in North Korea.”

12) “All hope of localization of the Korean conflict to enemy forces composed of North Korean troops with alien token elements can now be completely abandoned.”

과소평가와 오판은 중공군 개입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라기보다, 정보 실패의 전형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패가 단일한 판단 오류의 결과가 아니라, 정보의 계획, 수집, 분석, 전파라는 순환 과정 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중공군 개입과 관련된 정보 순환의 흐름을 검토하고, 실패가 구조적으로 형성된 지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언제 일어난 일인가?

1) 1단계. 계획과 지휘 (Planning and Direction)

한국 전쟁 발발 전까지 한반도는 미국 정보기관의 우선순위에서 낮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개입 가능성 또한 중대한 우려로 부상하였다. 1950년 9월27일 하달된 대통령 지침에 따르면 맥아더 장군은 중국이나 소련의 주요 군대가 진입하거나 진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38도선을 넘을 수 있었다. 초기 외부 세력의 개입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극동사령부(FEC)는 10월5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기 시작할 즈음 중공군 개입을 최우선 정보 과제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몇 주 동안 중공군의 동원 징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2~3순위로 격하되었고, 심지어 중국이 제1차 공세를 시작한 10월25일에도 여전히 2순위로 분류되었다. 11월 내내 중국의 의도는 핵심 전략 변수로 남아 있었으나, 개입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잘못된 정보 평가로 인해 미국 지도부는 위협을 오판하였고, 이는 결국 유엔군의 압록강 진군 승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McDermott and Bar-Joseph 2017). 이는 중국 위협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우선순위 설정에 실패하였고, 정보 활동의 초점이 중국이 아닌 소련 감시에 맞춰지도록 한 결과였다.

2) 2단계. 수집 및 처리 (Collection and Processing)

정보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AFSA는 압록강 북쪽에서 중공군의 군사력 증강을 시사하는 상당한 양의 신호를 수집하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에는 상하이에서 만주로의 병력 이동 보고, 6·25전쟁 개입을 지시하는 통신 감청 내용, 북한 내 중공군을 위한 지도 수송과 예방접종 프로그램 등의 물류 준비 사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일관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실행 가능한 정보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정보 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정책결정자들도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신뢰하지 않은 데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장호근 2016; 석재왕 2019). 이러한 경고 신호의 무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11월중순까지도 전쟁을 최종 통일을 위한 기회로 규정하고, 중국 측의 개입이 확인된 뒤에도 위협을 과소 평가한 태도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홍석률 2022).

(1) 경고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중국은 38도선 돌파에 대해 점차 노골적인 경고를 발령하였다. 9월26일 저우언라이(周恩來) 외무장관은 유엔군이 북상할 경우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다음 날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위협이 중국 국민을 겁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네룽전(聂荣臻)은 인도 대사 판니카르(K. M. Pannikar)에게 “중국은 가만히 앉아 미국이 국경까지 오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독립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판니카르는 영국 측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으나, 미국 관리들은 그가 공산주의에 동조한다고 여겨 그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았다(Tucker 2016). 9월30일 저우언라이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이 제국주의 침략에 주저 없이 저항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였고, 10월1일 국군이 38도선을 넘자 추가 경고가 이어졌으며, 10월10일에는 중국 외교부의 최종 경고가 발표되었다(Walton, 2010; 장호근,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닷새 뒤, 맥아더는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고 선언하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하였다¹³⁾(Truman 1956). 10월19일에는 도쿄 주재 CIA 요원과 한 중국인 사업가가 중국의 개입이 임박하였다는 경고를 전달하였으나(Weiner, 2007), 이 역시 미국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13) “The Korean conflict was won and that there was little possibility of the Chinese Communists coming in.”

CI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러한 경고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자국이 선택한 시점에 전군을 동원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의 전쟁 결과를 분명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CIA 1950a). 특히 소련이 세계 전쟁을 원치 않거나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믿는 한 공개적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CIA 1950b).

(2) 중공군의 첫 번째 작전(10월25일~11월8일)

10월10일 최종 경고 직후, 중국은 곧바로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섰다. 제1차 작전 기간 동안 미군과 한국군은 상당한 규모의 중공군과 교전하였다. 백선엽 장군은 중공군 포로 심문 결과를 토대로, G-2를 통해 월러비 장군에게 약 2만 명의 중공군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알몬드(Edward M. Almond) 제10군단장이 지휘한 제10군단 포로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인근에 추가로 4,000~5,000명의 병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10월말까지 미 제8군과 제10군단 모두 자신들이 대규모 조직화된 중공군 부대와 맞서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Appleman 2000; 장호근 2016; McDermott and Bar-Joseph 2017). 11월1일, 미군의 공식 전사 기록에 따르면 중공군은 한국군 제2군단을 무너뜨리고 청천 일대에서 제8군 우측 측면을 위협하였다. 이튿날 밤 운산 인근에서는 중공군 한 사단의 전면 공격으로 제8군은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는 참패를 겪었으며, 이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의 첫 주요 패배였다. 이 전투의 인명 피해는 중국 개입의 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미군의 일일 사상자는 10월40명에서 11월초 326명으로 급증하였고, 전체적으로 중공군의 제1차 작전은 한국군, 미군 및 기타 유엔군에 1만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입혔으며, 중공군은 약 1만700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Aid and Richelson 2011).

이러한 전황은 언어 전문가의 부족, 장비의 낙후, 부대 간 조정 미흡 등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의 개입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주요 징후들을 상당 부분 포착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3) 3단계. 분석 (Analysis)

중국의 개입을 예측하지 못한 결정적 실패는 정보 수집이 아니라 분석 단계에서 발생하였다. 방대한 정보가 축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은 경고 신호를 일관되게 해석하는 데 실패하였다. 정보 순환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분석 실패는 원자료를 전략적 판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므로 실패의 파급력이 가장 컸다.

중공군과의 첫 번째 교전 이후, 미군 지휘부 내부에서는 전쟁의 종결 시점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제8군 사령관인 월튼 워커 중장(General Walton Walker)의 신중한 태도와 맥아더의 낙관론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맥아더의 판단에는 그의 최측근인 윌러비 장군과 G-2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¹⁴⁾ 결과적으로 이러한 낙관론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공군의 제1차 군사행동과 만주에서 포착된 인민해방군의 동원 징후 등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맥아더와 윌러비는 위협을 과소평가하였다(Kam 2004). 윌러비는 중국이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미 인천상륙작전 시점에 실행하였을 것이라 주장하며 위협을 단순한 ‘외교적 협박’으로 치부하였고, 맥아더는 10월15일 트루먼과의 회담에서 같은 견해를 개진하였다(McDermott and Bar-Joseph 2017). 중공군이 제1차 작전(10월25일~11월8일)을 개시한 이후에도 윌러비는 중공군 개입의 확대 가능성과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부인하였다. 그는 포로 심문 결과를 축소하고, 중공군을 의도적으로 ‘지원군(volunteers)’으로 분류하였으며, 상위 지휘부 명단을 누락하고 CIA의 포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중공군의 실제 전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는 등 전투 서열 추정치를 왜곡하였다. 그 결과, 윌러비가 보고한 수치는 실제 약 38만 명에 달한 중공군 병력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¹⁵⁾

14) 바-조셉과 맥더모트(Bar-Joseph and McDermott 2017)에 따르면, 맥아더의 전기 작가인 존 건서(John Gunther)는 윌러비가 자신을 워싱턴과 전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참모가 아니라, 맥아더 개인의 정보장교로 인식했다고 기록한다. 에이드(Aid 2000)는 윌러비가 워싱턴과 전장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지휘부로의 정보 및 수집 수단을 차단했으며, 그 결과 낙동강 방어선을 지휘하던 워커 장군이 이러한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아울러 워커는 맥아더의 핵심 참모진(inner circle)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윌러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언급되었다(Bar-Joseph and McDermott 2017).

11월중순, 미군 지휘부는 현 위치 유지, 압록강까지 진격, 철수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였다. 합동참모본부가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였으나, 맥아더 장군은 완충지대 형성(buffer-zone)으로 전쟁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피하고자 ‘크리스마스 전 귀환(Home-by-Christmas)’ 작전을 승인하였다. 공세 직전 정보당국은 중공군 병력을 약 4만~7만 명 규모로 보급 능력 또한 열악한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11월25일, 중공군은 대규모 매복 공격을 감행하여 24,000명의 미군을 포함한 총 36,000명 이상의 유엔군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현대전 사상 최대 규모의 매복전”으로 기록되었다(Halberstam 2007).

4) 4단계. 정보 전파 (Dissemination)

정보 순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정보 전파 실패’는 국가 안보 의사결정자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되, 그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중국 개입 사례에서 이러한 실패는 맥아더 장군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의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북한군의 급속한 붕괴 이후, 맥아더의 참모진은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반대 의견을 경시하기 시작하였다. 공세 지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장교들의 견해는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었고, 그 결과 참모부 내에서는 집단 사고(groupthink)와 선택적 해석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McDermott and Bar-Joseph 2017).

맥아더에 대한 경외심은 본부를 넘어 워싱턴까지 확산되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후에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상황을 평가하거나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고 회고하였다. 리지웨이 사령관(General Matthew B. Ridgway)¹⁵⁾ 또한 국방부가 맥아더의 북한 내 광범위한 병력 분산 배치 계획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그의

15) 헤인스(Haynes 2009)는 “1/3로만 계산”, 바-조셉과 맥터모트(Bar-Joseph and McDermott 2017)는 “1/5 미만”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

16) 1950년 12월23일 워커 중장의 순직 이후 미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였으며, 1951년 4월 맥아더 해임 이후에는 유엔군 사령관 및 미 극동군 사령관으로 재직하였다(The Army Historical Foundation). 또한 6·25전쟁 회고록 *The Korean War (1967)* 을 저술하였다.

전설적 지위와 군사적 성공 경험이 반대 의견을 잠재우는 “미신적 경외감”을 형성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공식 사료 역시 “중국 개입 위험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맥아더 장군의 의견에 대한 경외감이었다”고 기록한다(Stewart 2015).

더욱이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윌러비 장군이 제공한 정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는데, 그는 분석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워싱턴으로의 정보 흐름을 사실상 통제하였다(McDermott and Bar-Joseph 2017). 마지막으로, 중국을 단순한 소련 위성국으로 보는 냉전 초기의 전략적 가정은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Appleman 2000), 이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켜 대규모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고착화시켰다. 더구나 한국 통일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경고가 긴급하게 다뤄질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요컨대 중국의 의도를 전달하는 신호들은 분명히 존재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졌음에도, 맥아더에 대한 과도한 신뢰, 왜곡된 정보 흐름, 고착화된 지정학적 가정이 지배한 의사결정 환경 속에서 정보 기관이 수집한 정보들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은 6·25전쟁 당시 중국의 개입을 둘러싼 미국의 정보 순환 과정(intelligence cycle)을 재검토하며, 다음의 질문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은 중국의 개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는가? 개입은 사전에 예측되었는가? 미국 정보기관은 그 규모와 시기를 정확히 평가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정보 순환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실패가 발생하였는가?

분석 결과,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그 시점과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1차 중공군 작전과 제2차 작전 사이의 기간에 이러한 오판이 두드러졌다. 중국 지도부가 ‘제한적 초기 개입(limited initial engagement)’의 목표를 명확히 천명하였음에도, 미국 정보당국은 그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지 못한 채, 전면적 개입으로의 확전을 과소평가하였다.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 정보기관

이 구조적·자원적 제약에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 연구는 정보 실패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수집 단계의 한계가 아니라 전략적 방향성의 부재와 정보 순환 과정 내부의 자기 점진 기능 결여에 있었다고 평가한다. 정보는 기존의 신념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었으며, 그 결과 분석 및 전파 단계에서 심각한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과 조직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즉, 중국의 개입을 예측하지 못한 원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수집된 경고와 전장 보고가 제대로 분석·활용되지 못한 데 있었다. 해당 정보가 적절히 활용되고 해석되어 대응으로 이어졌다면, 중국의 대규모 공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실패가 단일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순환 과정 전체에서 발생한 연쇄적 단계 실패임을 보여준다. 특히 각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학습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초기의 잘못된 가정이 체계 전반에 고착되었다. 다시 말해, 정보 순환의 각 단계는 이전의 오류를 교정할 잠재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중공군 개입 국면에서 미국은 그 기회들을 놓쳤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습 공격과 정보 실패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패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인식하고, 정보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 파악하며,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제도적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이 지연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패가 반복될 위험이 커지고 그 결과는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

김주현은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생이다. 국가 간 위기와 전쟁 역지를 개인 수준의 인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구하며, 특히 국가 및 지도자의 평판이 위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또한 정보기관과 소집단 의사결정의 정치적 결과에도 관심이 있다.

참고문헌

- 석재왕. 2019. “한국과 미국의 정보체계 비교연구: 환경, 정보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제58권, 107-136.
- 이종판, 코야나기 준이치. 2008. “한국전쟁 당시 중국개입의 예측실패에 관한 연구: 미국동군사령부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군사(military history)』, Vol.-No. 67, 55-102.
- 장호근. 2016. “6·25 전쟁 시 중공군 개입과 정보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보연구』, 제10권 1호, 197-261.
- 정주진. 2020. “한미 정보협력의 이완과 6.25 전쟁 예측 실패.” 『국가정보연구』, Vol. 13, No.1, 91-139.
- 한관수. 2017.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and the US Intelligence Failures for Predicting it.” 『한국동북아논총』, Vol. 22, No. 2, 263-283.
- 홍석률. 2022. “한국전쟁기 중국군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사』, 제140권, 225-253.
- Aid, Matthew M. 2000. “US Humint and Comint in the Korean War: From the Approach of War to the Chinese Intervention.”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ume 14, 17-63.
- Aid, Matthew and Jeffrey Richelson. 2011. U.S. Intelligence and China: Collection, Analysis, and Covert Action. Unpublished paper. NSA Archive, 1-54.
- Appleman, Roy E. 1950.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00). https://www.koreanwar.org/kwp2/cmh/south_to_the_naktong.pdf (최종검색일: 2025/09/27)
- Ashraf, Asm and Noor Sarker. 2016. “Intelligence Failure in South Asia: A Comparative Analysis,” ASM Ali Ashraf. eds. *Intelligenc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A South Asian Narrative*. Dhaka: BILIA and Dhaka University.
- Betts, Richard K. 1980. “Surprise Despite Warning: Why Sudden Attacks

- Succee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5, no. 4, 551-72. <https://doi.org/10.2307/2150604>.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50a. “ORE 58-50: Critical Situations in the Far East. October 12, 1950.” <https://www.cia.gov/readingroom/document/0001166750> (최종검색일: 2025/09/27)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50b. “CIA 10-50: Review of the World Situation, October 18, 1950.” <https://www.cia.gov/readingroom/docs/CIA-RDP67-00059A000500080014-3.pdf> (최종검색일: 2025/09/27)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istorical Staff. 1955. “Study of CIA Reporting on Chinese Communist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September-December 1950.” 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s/DOC_0000608161.pdf (최종검색일: 2025/09/27)
- Dehuai, Peng. 2001. “My Story of the Korean War,” Xiaobing Li, Allan R. Millet, and Bin Yu, eds. *Mao's Generals Remember Korea*, trans. Millet and Yu. Lawrence: University Press Kansas.
- Drew, Nelson S., ed. NSC-68: Formulating the Strategy of Containment.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6.
- Finnegan, John P. 2011. “The Evolution of US Army HUMINT: Intelligence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Studies in Intelligence*, Vol. 55, No. 2, 57-70. <https://www.cia.gov/resources/csi/studies-in-intelligence/volume-55-no-2/>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a, Korea, vol. 7, doc. 883,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November 25, 1950.”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7/d883>. (최종검색일: 2025/09/27)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b, Korea, vol. 7, doc. 885,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November 28, 1950.”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7/d888> (최종검색일: 2025/09/27)
- Halberstam, David, 2007.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 War. New York: Hyperion.
- Haynes, Justin M. 2009. "Intelligence Failure in Korea: Major General Charles A. Willoughby's Role in the United Nation Command's defeat in November, 1950." Thesis., Fort Leavenworth, Kansas.
- Jackson, Colin F. 2010. "Lost Chance or Lost Horizon? Strategic Opportunity and Escalation Risk in the Korean War, April-July 1951."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3 (2), 255-89. <https://doi.org/10.1080/01402391003590499>.
- Jervis, Robert. 2010. *Why Intelligence Fails: Lessons from the Iranian Revolution and the Iraq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Johnson, Loch K. 2006. "A Framework for Strengthening U.S. Intelligenc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2 (Winter/Spring), 116-131.
- Kam, Ephraim. 2004. *Surprise Attack: The Victim's Perspective, With a New Prefa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Youngjun. 2015. "The CIA and the Soviet Union: The CIA's Intelligence Operations and Failures, 1947-1950."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5, No.2, 45-67.
- MacArthur, Douglas. 1950. "Message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September 28, 1950." Subject Files, 1945-1953, Textual Records, National Archives Identifier 295024689,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MD, <https://catalog.archives.gov/id/295024689>. (최종검색일: 2025/09/27)
- MacArthur, Douglas. 1950. "Message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November 4, 1950." Subject Files, 1945-1953, Textual Records, National Archives Identifier 295024695,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MD, <https://catalog.archives.gov/id/295024695> (최종검색일: 2025/09/27)
- McDermott, Rose, and Uri Bar-Joseph. 2017. *Intelligence Success and Failure: The Human Fact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llen R. Millet. 2005. *The War for Korea, 1945-1950*.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Ridgway, Matthew B. 1967. *The Korean War*. Garden City, NY: Doubleday.

- Stewart, Richard W. 2015. *The Korean War: The Chinese Intervention*. 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The Army Historical Foundation. The Korean War: General Matthew B. Ridgway (1895-1993). <https://armyhistory.org/general-matthew-bunker-ridgway/> (최종검
색일: 2025/11/24)
- Thorton, Richard C. 2000. *Odd Man Out: Truman, Stalin, Mao,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Brassy's.
- Tucker, Spencer C. 2000.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vol. III*. Santa Barbara: ABC-CLIO.
- Truman, Harry S. 1956. *Memoirs (Vol II): Years of Trial and Hope 1946-1952*.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 Uri Bar-Joseph and Jack S. Levy. 2009. "Conscious Action and Intelligence Failur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ume 124, Issue 3, 461-488. <https://doi.org/10.1002/j.1538-165X.2009.tb00656.x>.
- Walton, Timothy. 2010. *Challenges in intelligence analysis: lessons from 1300 BCE to the pres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ner, Tim. 2007. *Legacy of Ashes: The History of the CIA*. New York: Doubleday.
- Yu, Bin. 2001. "What China Learned from Its 'Forgotten War' in Korea," Xiaobing Li, Allan R. Millet, and Bin Yu, eds. *Mao's Generals Remember Korea*, trans. Millet and Yu. Lawrence: University Press Kansas.

Abstract

Chinese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and U.S. Intelligence Failure - Revisiting Strategic Surprise in the Intelligence Cycle

Joohyun Kim*

The Korean War was marked by two major episodes of strategic surprise: North Korea's invasion of the South and China's subsequent intervention. Despite the United States' intensified intelligence efforts to assess threats to U.S. and South Korean forces after the outbreak of war, it failed to anticipate or prepare for China's offensive. This study views China's intervention as a distinct case of intelligence failure, separate from the initial surprise of North Korea's invasion, and aims to identify the stages at which the failure occur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lligence cycle-direction, collec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The analysis finds that the root cause of failure lay not in the limits of intelligence collection, but in the absence of strategic direction and the lack of internal mechanisms for self-assessment within the intelligence process. Furthermore, by illuminating the interaction between intelligence and political judgment in shaping strategic surprise,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how leaders interpret warning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and high risk.

Key Words: The Korean War, Intelligence Failure, Chinese Intervention, Intelligence Cycle

논문투고일: 2025. 10. 20.

논문심사일: 2025. 11. 10.

게재확정일: 2025. 11. 19.

* Ph.D. Studen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jk328@iu.edu